



NH농협생명, 제4차 농촌의료지원사업 실시

NH농협생명은 지난 28일 당진시 석문농협 관내 석문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올해 네 번째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봉사단은 250여명의 농업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치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과목의 진료와 치료를 진행했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가운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생명



KT-MS-계명대, 'K-MIND센터' 설립 업무협약

KT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에서 계명대학교, 한국マイ크로소프트와 디지털 교육·연구 플랫폼 'K-MIND(케이-마인드)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왼쪽부터) KT AX사업본부장 유서봉 상무, 계명대학교 김범준 산학부총장, 한국マイ크로소프트 유현경 공동사업부문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영자문위원회 1차 회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영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왼쪽부터)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박일동 디렉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BNK금융그룹,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BNK금융그룹은 그룹 내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BNK WIN'S'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출범식은 BNK금융그룹 여성 관리자급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오피니언 리더 특강은 한국 공학교육 학회장을 역임한 오명숙 한국 여성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이 맡았다. /BNK금융그룹

대교에듀캠프 경계선지능 아동 교육 지원

대교에듀캠프는 연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년 연속 연천군 산간 지역의 경계선지능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교에듀캠프가 주관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마이페이스' 프로그램과 연계해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전문 상담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습 진단부터 맞춤형 수업, 심리 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이규석 사장 “대리점 협력 통해 서비스 경쟁력 극대화”

〈현대모비스〉

모비스 ‘대리점 컨퍼런스’

대리점 대표위원 200여명 참석
자동차 부품시장 동향·비전 공유

현대모비스가 전국 우수 대리점과 고객 가치 향상과 브랜드 신뢰도 강화를 모색하는 '2025년 대리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주말 제주 해비치호텔 앤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전국 대리점 대표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 주요 동향 및 지원 정책을 공유하는 정책



현대모비스가 지난달 27일 제주 해비치호텔 앤리조트에서 '2025 현대모비스 대리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규석 사장이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설명회, 비전 및 성장가치 워크샵, 우수 대리점 시상식 등을 진행했다.

이 사장은 "국내외 시장에서 고객들이 현대차·기아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 경쟁

력"이라며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누구보다 빠르게, 전국 어디든 A/S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모비스와 대리점의 협력으로 이어가자"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기아로부터 A/S용 순정부품 공급 책임을 위임받아 국내 1200여개 대리점과 해외 157개 국가에 1만 1000여 딜러를 운용하고 있다. 부품 공급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대리점을 중요한 고객이자,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반자로 인식, 2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과 대리점 경영 컨설팅, 비품 및 무상 안전진단 등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롯데그룹,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 진행

롯데홈쇼핑 등 9개 그룹사 참여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인재 확보”

롯데그룹이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은 채용 계획이 있는 롯데 그룹사들의 전형 시작일을 3, 6, 9, 12월에 맞춰 진행하는 채용 방식이다.

이번 6월 채용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홈쇼핑 등 총 9개 그룹사가 참여한다. 채용 직무는 전략 기획·인공지

능(AI)·재무·상품기획(MD)·연구개발(R&D) 등 총 32개 영역이다.

채용 설명회도 진행한다. 내달 10일과 14일에는 부산과 서울에서 롯데그룹 채용 설명회인 '잡카페'를 열고 입사 지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롯데그룹의 비전과 사업을 소개하고, 채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8월에는 베트남에서 '글로벌 잡카페'를 연다. 해외에서 채용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그룹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

이다.

한편, 롯데는 2021년 공채 제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그룹사별 전형 일정을 분기별로 정례화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수시 채용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재 확보에 힘써 왔다"며 "적극적인 채용 활동과 지원자의 입장장을 고려한 채용 제도를 통해 인재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여성 '여성기업주간' 돌입

여성기업인을 위한 최대 축제이자 법정 행사인 '제4회 여성기업주간'이 오는 4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30일 여경협에 따르면 올해 여성기업주간 슬로건은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로 정했다.

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판로·공공구매 ▲소통·정책 ▲창업·일자리 창출 ▲지역행사 4가지 부문으로 준비됐다.

박정숙 여경협 회장은 "제4회 여성기업주간 행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급 승진 △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특허청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지은

◆한국부동산원 ◇지역본부장 보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겸 인천지사장 이남훈 △호남지역본부장 겸 광주지사장 김찬용

◆신한투자증권 ◇신임 부서장 △투자자산관리부 김영백 △PI부 한정근

◆세이프타임즈 △편집국장 직무대리 성창희

부 음

▲이경순씨 별세, 이호상(대한주택건설 협회 전략기획본부장)·준상(건설경제 신문사 발행인)·태상(개인사업)씨 모친상 = 30일 오전 7시30분, 술낙원 오산동 탄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2일. 031-966-1009

▲이홍우씨 별세, 이석의·이길의(마스터 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이옥의·이수진(이정의)씨 부친상, 윤한순·권정아씨 시부상, 황승주·이영제씨 장인상, 이기혁·이기현·이기민·이기윤·이수민·황세원·이도건씨 조부상 = 30일 오전 10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5호실, 2일. 031-219-4591

우아한형제들, ‘배민’ 거래액 153조 돌파

누적 주문 65억여건 달해

배달의민족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앱 출시 후 지난 15년간 발생한 누적 주문 건수는 65억여건에 이르며, 누적 거래액은 약 153조 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배민은 지난 2010년 6월 25일 음식점 전단지를 대체하는 앱으

로 시작했다. 2012년 12월 배민의 월간 주문 건수는 200만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1년 8월에는 처음으로 1억건을 돌파하며 약 9년 만에 50배 성장했다.

배민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음식점의 매출을 의미하는 연간 거래액도 빠르게 성장했다. 2015년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증가

해 2025년 기준 누적 약 153조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배민 입점을 한번 이상 경험한 외식업체는 누적 120만여명에 이른다. 월간 방문자수는 2012년 약 100만명에서 2019년 4월 배달앱 최초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는 매달 2100만명(월간 활성 이용자 수 기준)이 넘는 사람들이 배민을 통해 30만여개의 가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을 배달로 즐기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